

마다가스카르에 보낸 400만원, 1000명 삶을 바꿨다

Cover Story

숲과나눔 글로벌 프로젝트 '국제 풀씨'

"신생 단체도 신청할 수 있나요?" "분쟁 지역인데 지원해도 괜찮나요?" "작은 섬나라도 자격이 될까요?"

매년 3월 숲과나눔의 '국제 풀씨(Global Seed Grant·이하 GSG)' 공고가 뜨면 재단 메일함은 금세 꽉 차버린다. 나이지리아·케냐·필리핀 등 익숙한 나라뿐 아니라 베냉·모리타니아·마다가스카르 등 생소한 국가에서도 높은 관심이 쏟아진다.

GSG는 재단법인 숲과나눔이 2020년부터 운영하는 글로벌 시민 아이디어 지원 프로그램이다. 작은 단체들 사이에서 GSG는 빠르게 입소문을 탔다. 지난 3월 숲과나눔이 페이스북에 올린 6기 모집 게시글에는 전 세계 3만 명이 '좋아요'를 눌렀다.

장재연 숲과나눔 이사장은 "지금까지 '국내 풀씨' 프로그램을 통해 477건에 달하는 환경·안전·보건 분야 시민 아이디어를 발굴했다"면서 "이 사업의 성과와 노하우를 세계 무대로 확장하기 위해 국제 풀씨 'GSG'를 시작했다"고 말했다.

지원금 3000달러가 만든 기적

GSG 선정 팀에겐 6개월간의 활동비 최대 3000달러(약 410만원)를 지원한다. 인터넷 환경조차 갖춰 지지 않은 작은 단체들의 상황에 맞춰 지원 서류도 간소화했다. 복잡한 회계 보고서나 숫자로 가득 찬 과거 프로젝트 실적 서류는 필요하지 않다. 지역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 솔루션, 실현 가능성 등을 설명한 A4용지 5장 분량 신청서면 충분하다.

지원 장벽을 낮추자 그동안 드러나지 않았던 참신한 솔루션을 담은 제안들이 쏟아졌다. 식량안보, 자원순환, 여성의 권리 등 제3세계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지역사회의 주민들이 내놓은 아이디어들이다.

네팔 대학원생 11명이 모여 설립한 '칼파바티카 소사이어티 네팔'은 쓰레기 노동자들의 '발'에 주목했다. 네팔 최대 인구 밀집 지역인 카트만두시 인근의 시스돌 쓰레기 매립지에는 매일 1200t의 쓰레기가 쌓여 산을 이룬다. 이곳에서 쓰레기 더미를 치우고, 필요한 자원을 수집해 생계를 이어가는 노동자들은 맨발로 작업하는 것이 일상이었다. 손과 발에는 날카로운 쓰레기에 베인 상처와 부상이 끊이지 않았다. 대학원생들은 GSG의 보조금으로



그래픽=문유비

노동자 전원에게 안전 부츠를 지급하고, 개인보호 장비의 중요성을 알리는 교육을 실시했다.

에티오피아 오지마를 아디스암바에서는 청년들이 산모와 영유아의 건강을 위해 나섰다. 2021년 당시 에티오피아의 산모 사망률은 출생아 10만 명당 412명으로, OECD 평균(6명)의 69배에 달했다. 영아사망률(출생아 1000명당 32.5명)도 OECD 평균(3.9명)의 8배였다. 산모들이 길 위에서 아이를 낳다가 숨지는 사고가 연달아 일어났다. 육아 지식

이 부족한 부모들은 신생아에게 모유 대신 일반식을 먹이기도 했다. 마을 청년 두 명은 비영리단체 '센티넬 에티오피아'를 설립한 이듬해 GSG 3기에 선정됐다. 임산부 47명을 대상으로 산전·산후 교육을 열었고, 마을 한가운데에는 모자보건 정보를 전달하는 안내판도 설치했다. 그해 이 마을에서 14명의 아이가 무사히 태어났다.

GSG는 최대 3번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아프리카 섬나라 마다가스카르의 비영리단체 '하이브



각자의 방식으로 이어가는 기부... '더기버스50' 3차 명단 공개

파이워크 '더기버스50' 선정

한국의 기부자들 누적 30인 발표

'한국의 기부자들: The Givers 50'(이하 더기버스 50)의 세 번째 선정자들이 오늘(10일) 공개됐다. 예술·디자인·의료·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각자의 방식으로 기부와 나눔을 실천해 온 인물들로 김유리·김창희·김홍렬·배상민·백동민·서도성·박경자(부부)·신현각·이경제·이경혜·정슬아 등이다.

'더기버스50'은 유명인이나 초고액기부자가 아닌 각자 처한 환경에서 의미 있는 기부를 이어가고 있는 기부자를 조명하는 프로젝트다. 중앙일보

보 공익섹션 더버터와 비영리단체들이 함께하는 민간 주도 기부문화 확산 캠페인 '파이워크(Pie Week)'의 일환으로 매년 50인을 선정한다. 파이워크 참여 단체들과 전문가들이 추천한 후보자 중에 내부 기준에 따라 최종 50인을 선정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지금까지 공개된 기부자는 30인이며, 남은 20인은 더버터 지면과 파이워크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순차적으로 소개될 예정이다. 기부자 선정 기준은 ▷지속성 ▷태도 ▷스토리 ▷영향력 ▷다양성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한다. 금액보다 '어떤 마음으로, 어떤 방식으로 이어가고 있는가'를 중시하며, 다양한 삶과

나눔의 방식을 고르게 담아내는데 초점을 둔다.

올해 '2025 파이워크' 캠페인에는 23개 비영리단체가 참여하고 있다. 국제구조위원회, 굿네이버스, 굿피플, 기아대책, 대한사회복지회, 밀알복지재단, 바보의나눔, 부스러기사랑나눔회, 사랑의달팽이, 세이브더칠드런, 열매나눔재단, 월드비전, 유니세프 한국위원회, 유엔난민기구, 초록우산, 컨선월드와이드, 케이와이케이파운데이션, 플랜인터내셔널코리아, 한국컴퍼션, 한국해비타트, 함께일하는 재단, 함께하는사랑밭, 훌트아동복지회(이상 가나다순) 등이다.

문일요·최지은·박선하 더버터 기자

» 8면 '더기버스50'으로 계속

'우먼'은 2020년부터 3년 연속 지원을 받아 마난드리아나 마을 여성 청소년 1000여 명의 삶을 개선했다. 마을주민 10여 명이 모여 만든 이 단체에서 해결하고자 한 문제는 여학생들의 성 건강이었다. 여학생의 90%가 제대로 된 생리대를 살 여유가 없었고, 대다수가 성병을 앓고 살았다.

마난드리아나 마을에서는 3000달러로 할 수 있는 일이 많았다. 첫해에는 여학생을 대상으로 면생리대 만들기 수업을 열었다. 여아 90명이 사용할 깨끗한 천과 바느질 재료를 구매했다. 전문 강사의 성교육도 처음으로 진행했다. 강사비와 빙프로테터 등 장비 렌탈비를 지급하고, 약간의 간식도 구매할 수 있었다. 2년 차에는 700여 명의 인원을 수용할 수 있는 2층짜리 센터를 지었다. 3년 차에는 마을 주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깨끗한 화장실을 설치하고, 인근 학교 교직원들에게 여학생을 위한 위생 시설의 중요성을 알리는 인식 개선 활동을 펼쳤다.

지난해까지 전 세계 61개국에서 총 1858개 아이디어가 접수됐다. 숲과나눔은 이 중 42개국, 136개 아이디어에 40만2258달러(약 5억5000만원)를 지원했다. 김혜승 숲과나눔 캠페이너는 "처음 도전한 프로젝트라고 보기 어려울 정도로 뛰어난 팀들이 많다"면서 "담당자로서 이들의 잠재력이 실제 성과로 이어지도록 도우면서 큰 보람을 느낀다"고 말했다.

관행을 부수고 새로운 연결을 만들다

"GSG처럼 지역의 작은 조직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은 드물어요. 2017년에 단체를 설립하고 보조금 사업을 찾아봤지만 대부분 우리 같은 단체는 '자격 미달'이더라고요. 페이스북에서 처음 GSG 프로그램을 봤을 땐 '정말 우리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건가?' 믿기지 않았어요. 혹시 사기는 아닌지 알아볼 정도였죠." (애년주아 하이브우먼 활동가)

지역의 소규모 조직에 대한 지원의 공백 속에서 GSG 인기는 매년 높아지고 있다. 사업 첫해에는 19팀을 모집하는데 56팀이 지원해 3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지난해 5기 모집에는 첫해의 10배가 넘는 617팀이 지원해 20대 1의 경쟁률을 웃돌았다. 숲과나눔은 선발 규모를 30팀으로 늘렸지만, 잠재력 있는 상당수의 아이디어가 기회를 얻을 수 없었다.

최지은 더버터 기자

» 3면 '국제 풀씨'로 계속

Inside

김인권 바보의나눔 상임이사 인터뷰 C2

국내 최대 장애인 직업훈련시설 개원 C3

교실에서 시작되는 공공외교의 힘 C4

보고서에 갇혀있던 CSR, 유튜브로 나오다 C5

'신앙기반 필란트로피' 가 진화한다 C6

디자인, 사회문제 해결의 도구가 되다 C7

한국의 기부자들: 더기버스50' 선정자들 C8

중앙일보 공익섹션 더버터(The Butter)

- 취재팀 : 김시원 편집장, 문일요 취재팀장
최지은·박선하 기자

- 공익사업팀 : 이영은 매니저, 박찬주 인턴
- 문의 및 제보 : hello@thebutter.org
02-3789-7861

“세상엔 바보들이 더 많아져야 합니다”

김인권 바보의나눔 상임이사 인터뷰

햇볕에 보기 좋게 그을린 얼굴이었다. 사제복을 입지 않았다면 신부가 아니라 농부라 해도 믿었을 것이다. 지난달 23 일 명동대성당 사무실에서 만난 김인권(51) 바보의나눔 상임이사는 “산불 피해를 본 의성, 안동 현장에 다녀오느라 얼굴이 좀 뒤졌다”며 웃었다.

재단법인 바보의나눔은 2009년 김수환 추기경이 선종하고 이듬해 설립됐다. 당시 한국 천주교회의 고민은 하나였다. 평생 소외된 이들과 함께하며 인권·정의·나눔을 실천한 추기경의 뜻을 어떻게 이어 나갈 것인가. 그의 빙자리를 어떻게 채울 것인가. 그 어려운 임무를 부여받은 곳이 바보의나눔이다.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세상’을 꿈꿨던 김수환 추기경. 지난 15년간 바보의나눔은 그가 남기고 간 꿈을 부지런히 쫓았다. 별나다 싶을 정도로 정직하고 우직하게 운영했다. 설립 첫해 8억원이었던 모금액은 지난해 145억원으로 규모가 크게 늘었다. 김인권 상임이사는 “자랑스럽기도 하고 아쉽기도 하다”고 했다.

담배를 끊는 방법

-자랑스러운 건 뭐고 아쉬운 건 뭔가요.

“치열한 모금시장에서 10년 만에 100 억원 이상 모금하는 기관으로 성장했다는 게 놀랍고 자랑스럽죠. 하지만 추기경님의 유지를 이어가는 재단이라고 하기에는 모금 규모도 더 커져야 할 것 같아요. 설립 15주년인데 아직도 재단을 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산불 피해 지역은 어땠나요.

“체육관·경로당·마을회관에서 지내는 어르신들을 보면서 걱정도 됐고, 한

편으로 와보길 잘했다는 생각도 들었습 니다. 현장을 돌아 보니 추기경님 생각이 많이 났어요.”

-어떤 생각이요.

“추기경님은 정말 바쁜 일정 중에도 매년 성탄 전야에 소외된 이들을 찾아가 성탄미사를 하셨어요. 교도소를 주기적으로 방문해 사형수들을 위로하셨고, 성매매 여성들에게는 가족이 되어 주셨죠. 직접 보고 들어야 할 도울 수 있으니까요.”

-추기경님과 개인적인 인연도 있으신가요.

“추기경님께서는 은퇴하신 뒤 혜화동에 있는 사제관에 지내셨어요. 저도 그때 2~3년 정도 함께 생활했죠. 추기경님은 저 같은 젊은 사제들에게도 권위를 세우지 않으셨어요. 한번은 추기경님을 독대한 적이 있었어요. 담배 끊는 게 쉽지 않다고 말씀드리니 담배 끊는 방법을 알려주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추기경님도 담배를 피우시다가 1984년도에 끊었다고 하셨어요. 너무 궁금해서 어떻게 끊으셨냐 여쭈었더니 ‘딱! 끊었어’라고 하셨죠.”

-딱 끊었다고요?

“네. 그때 큰 깨달음을 얻었어요. 추기경님은 중요한 결정을 하시거나 사회적인 메시지를 내보낼 때 절대 물러서지 않는 단호함이 있으셨어요. 소중하게 지켜야 하는 신념이나 가치, 진리 이런 것은 타협하면 안 된다는 걸 농담처럼 저에게 말씀하셨던 것 같아요.”

미인가시설도 끝까지 돋는다

-바보의나눔의 독특한 철학이 있다면요.

“기본적으로는 공모사업을 통해 기부금을 배분하고 있어요. 하지만 정말 도움이 절실한 곳이라면 미인가시설이라 해도 가리지 않고 지원합니다. 요청이 올

때마다 ‘추기경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생각해 봐요. 그러면 쉽게 결정할 수 있죠.”

-대표 사업에는 어떤 게 있나요.

“추기경님께서는 이주노동자들을 볼 때마다 ‘몸 아프면 저 사람들은 어디로 가야 하나’ 하며 걱정하셨어요. 혜화동 성당에 무료진료소 공간을 내주시기도 하셨죠. 바보의나눔도 이주민의 문제에 집중하고 있어요. 2018년부터 공모배분사업 분야에 아예 ‘이주민’ 카테고리를 신설해 지원하고 있죠. 그중에서도 여의도성모병원과 함께하는 ‘미등록여성 산전검사비 지원사업’을 소개하고 싶어요. 미등록 이주여성이 임신 기간 동안 안심하고 검사를 받을 수 있게 여의도성모병원을 통해 지원하고 있어요. 전국 어디에도 이런 지원이 없기 때문에 지방에 있는 이주여성들이 차를 타고 산전 검사를 받으러 옵니다.”

-바보의나눔에 대해 잘 모르는 사람들 많다고 하셨잖아요. 어떤 게 좀 더 알려지면 좋을까요.

“저희는 ‘특례기부금단체’입니다. 기부금 수입의 10% 이내로만 관리운영비를 사용할 수 있어요. 굉장히 엄격한 기준이라 운영비가 빠듯하죠. 대신 기부자들에게는 높은 세금 감면 혜택을 줍니다.”

-기부자들이 좋아할 만한 정보네요.

“실제로 많은 기업이 저희와 함께 기부금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세금 혜택 면에서 상당히 이점이 있죠.”

-정부 보조금은 받지 않는다고요.

“네, 그래서 모금이 중요해요. 도움이 절실한 사람들을 더 발굴하고 도와야죠. 홍보도 필요합니다. 바보의나눔이라는 곳이 있다는 게 알려져야 어려운 사람들이 저희를 찾아올 수 있잖아요.”



김인권 바보의나눔 상임이사는 “바보의나눔은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세상’을 꿈꿨던 김수환 추기경의 뜻을 이어받아 설립된 재단”이라고 말했다.

김용재 기자

-7월에 대규모 공모배분사업 접수를 진행한다고 들었어요.

“43억원 규모로 공모배분사업을 접수받고 있어요. 이달 말까지입니다. 소외된 이들을 돌보는 단체라면 어디든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규모 기관을 우선으로 선정할 예정이에요. 인건비나 관리운영비에 제약을 두지 않고 유연하게 지원할 계획입니다.”

-김수환 추기경은 자신을 ‘바보’라고 불렀습니다. 어떤 의미인가요.

“자신을 낮춰 다른 이들을 편하게 해주는 마음입니다. 추기경님이 자신을 바보라고 했으니 우리 재단도 그 뒤를 따라야겠죠. 재단의 문턱이 더 낮아져야 합니다. 그리고 세상에 바보들이 더 많아지면 좋겠습니다.”

김시원 더버터 기자

“비영리 MZ들, 여기 다 모였어요”

D.MZ(덴지) 알럼나이 파티

다음세대재단이 운영하는 MZ세대소셜센터 활동가 커뮤니티 D.MZ(덴지)의 ‘2025 알럼나이 파티’가 지난달 13일 서울 성동구 헤이그라운드 성수시작점에서 열렸다.

덴지는 소셜센터의 MZ 활동가들이 일과 성장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각자의 관심사를 공유하면서 활동을 지속할 수 있도록 돋는 커뮤니티 프로그램이다. 다음세대재단은 2021년부터 직무·취미 등을 주제로 한 78개의 모임을 개최했으며 누적 647명의 활동가들이 함께했다. 이번 알럼나이 파티에는 그동안 덴지에 참여했던 활동가 70여 명이 다시 모여 그동안의 소식을 공유하고 소셜센터의 지속가능성을 함께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참가자들은 이번 파티를 비롯한 덴지의 다양한 모임을 통해 성장과 재충전의 기회, 활동을 지속할 내적 동력을 얻었다고 말한다. 사단법인 ‘늘픔가치’의 박희선 사무국장은 “조직이 크지 않다 보니 업무에 대한 고민을 나눌 또래 동료가 없어 아쉬움이 많았다”며 “이곳에서 정서적 지지와 고민을 나눌 동



지난달 13일 열린 D.MZ(덴지) 알럼나이 파티 현장.

[사진 다음세대재단]

료가 생겨 큰 위로와 응원을 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후원 연계, 프로그램 협업, 홍보 등 실질적인 협력의 기회와 신뢰를 기반으로 한 동료 네트워크를 얻은 것이 가장 큰 수확”이라고 말했다.

덴지는 ‘기반조성기부’의 대표 사례다. 기반조성기부란 비영리 생태계를 이루는 사람·조직·인프라에 투자하는 새로운 기부 방식이다. 단기적인 성과를 내는 것보다는 장기적인 지속성과 생태계의 성장 기반을 구축하는 것을 지향한다. 방대욱 다음세대재단 대표는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성을 만들어 갈 공익활동가는 하루아침에 길러지지 않는다”면서 “사람을 10년 동안 지지하면, 이들은 우리 사회의 다음 30년

을 바꾸는 중심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다음세대재단은 MZ세대 활동가들이 함께 성장하고 협력할 기회를 마련하기 위한 다양한 지원을 준비하고 있다. MZ 공익활동가들이 소진되지 않고, 건강하게 활동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면서 기반조성기부의 핵심 가치를 실현한다는 계획이다. 방대욱 대표는 “단 한 명의 활동가를 지키는 기부가 결국 모두의 지속가능성을 만들어 낼 것”이라며 “기반조성기부의 가치에 공감하고 비영리 생태계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함께 만들 개인과 기관의 기부가 절실히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지은 더버터 기자

편집장 칼럼

슈가의 50억 빅벳, 그 뒤의 설계자



김시원
더버터 편집장

중요하지 않다. 목표가 최고의 뺑을 만드는 것이라면 밀가루를 100원 주고 사든 95원을 주든 그건 큰 문제가 아니다. 기부자가 바라는 건 최고의 뺑. 자신의 돈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 모습을 보고 싶은 것이다.

슈가가 왜 이번 빅벳을 결심했는지 궁금했다. 세브란스병원에 50억원을 기부했다. 자폐스펙트럼장애 아동청소년을 위한 치료센터를 설립한다고 했다.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베풀고자 하는 돈을 내놓는 자선 활동을 빅벳이라

고 한다. 단순히 액수가 크다고 빅벳이 되는 건 아니다. 기부자가 사회문제 해결에 대한 목표와 의지를 가지고 하나의 단체, 혹은 단일 프로젝트에 기부해야 한다는 게 빅벳의 조건이다. “이 문제 하나만큼은 끝장을 보겠다”는 생각으로 해야 한다는 뜻이다.

세상 어느 누가 자기 돈이 헛되이 쓰이길 바랄까. 빅벳 기부자들도 마찬가지다. 그래서 유능한 설계자를 찾는다.

문제를 정확하게 정의하고 전략을 세워 효과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전문가.

이게 가능하다는 ‘신뢰’가 생겨야 기부자는 돈을 내놓는다.

그 이후엔 신뢰로 쭉 간다. 영수증? 중요하지 않다. 목표가 최고의 뺑을 만드는 것이라면 밀가루를 100원 주고 사든 95원을 주든 그건 큰 문제가 아니다. 기부자가 바라는 건 최고의 뺑. 자신의 돈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 모습을 보고 싶은 것이다.

인터뷰한 지는 10년도 넘었다. 그때도 이미 유명한 교수였다. 아동청소년 ‘마음건강’에 관한 열 퀸짜리 학습만화를 기획했다고 해서 인터뷰를 했다. 출판사에서 만화책 감수를 부탁했는데 본인이 나서서 전체 기획을 맡았다고 했다. 마음이 힘든 아이들에게 작은 도움이라도 되고 싶었다고 했다. 적당히 이름만 올려달라는 전문가들도 있다던 데 이 사람은 거꾸로네, 생각했다.

한국에서 빅벳이 좀처럼 성사되지 않는 이유는 좋은 기부자가 없어서도, 좋은 기부처가 없어서도 아니다. 그 좋은 둘이 서로 만나기 어려워서다. 이번에는 잘 만난 것 같다.

교실에서 시작되는 공공외교, 언어로 문화를 잇다

주한영국문화원의 공공외교

서울 종로구에 있는 주한영국문화원은 1970년대 유학을 준비하거나 영어 공부를 시작하려는 사람들이 찾는 공간이었다. 당시만 해도 낯선 나라 영국의 문화를 느끼고, 어학 자료를 빌릴 수 있는 유일한 장소, 한국에서 영국을 가장 가까이 경험할 수 있는 창구였다.

50년이 지난 지금, 단순한 교육기관이나 문화센터를 넘어 하나의 ‘공공외교’ 플랫폼으로 자리 잡았다. 공공외교는 국가정상이나 장관급 회담으로 이뤄지는 공식외교와 달리 공공과 민간이 협력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사실상 문화외교에 가깝다. 주한 영국문화원은 언어와 교육, 문화라는 수단으로 한국과 영국을 잇는 역할을 한다. 대사관과 별개로 외교활동의 거점 역할을 하는 셈이다. 외교관 없이 외교 활동을 수행하는 공공외교의 중심에는 교육과 문화가 있다.

교실 안의 언어 외교

학부모 사이에서 주한영국문화원은 이른 바 ‘영어 학원’으로 유명하다. 겸증된 원어민 교사를 만날 수 있다는 강점으로 알려졌지만, 교육 프로그램 바탕에는 ‘문화 간 이해’와 ‘스스로 배우는 법’을 함께 교육하는 철학이 담겨 있다. 낐 로버츠 영국문화원 아태지역 영어나 콘텐츠 리드는 “언어를 가르치는 게 아니라, 세계를 이해하는 방식을 제시하는 것”이라며 “학생들이 스스로 학습하는 방법을 배우고 언어를 실생활에서 유의미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돋는 것이 교육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교육 철학을 이해하려면 영국문화원의 90년 역사를 이해해야 한다. 1934년 영국 정부의 공공외교 전략을 실행하기 위해 설립된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문화교류 기관이다. 당시 유럽 내에 팽배하던 극 단주의에 대응하는 수단으로 문화교류를 선택했다. 이후 제2차 세계대전 시기에는 개방적 소통과 문화 간 지식 공유에 주력

했고, 최근에는 디지털학습을 비롯한 청년역량강화, 예술교류, 세계시민교육 등 다양한 분야로 확대하고 있다. 임혜숙 영국문화원 한·일영어교육사업총괄은 “전 세계 100여 개국에서 90년간 교류해 오면서 예술·문화·파트너십, 교육, 영어 교육 등 모든 활동의 중심에 개방성, 존중, 상호 이해라는 핵심 가치를 일관되게 지켜왔다”며 “교육 프로그램이 단순히 언어를 가르치는 것을 넘어 영국 문화를 이해하고 글로벌 감각을 자연스럽게 체득할 수 있도록 설계된 이유”라고 했다.

대표적인 사례가 ‘킨더플러스(Kinder Plus)’ 프로그램이다. 유아들을 대상으로 감정 표현, 신체 활동 등을 결합해 언어와 감성 발달을 동시에 교육한다. 초등 과정인 ‘프라이머리플러스(Primary Plus)’는 환경, 디지털 윤리, 협력 등 주제를 중심으로 한 프로젝트 기반 수업이다. 아이들이 시험을 위한 도구가 아니라 자기 생각을 표현하고 실생활에서 활용하는 소통의 도구로 영어를 배우도록 기획됐다. 특히 한국에서는 해외 체류 후 귀국한 학생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리턴리(Returnees)’는 다문화 배경을 자연스럽게 존중하고 창의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설계돼 있다.

정규 수업 외에도 학습자들이 영국 문화를 체험하고 국제적 감각을 키울 수 있는 다양한 활동이 마련된다. 영국문화원 독서 권장 프로그램 ‘리딩 챌린지(Reading Challenge)’, 어린이 그림대회 ‘아트 캠퍼티션(Art Competition)’, ‘커네틱팅 컬쳐스(Connecting Cultures)’와 같은 프로그램을 통해 학생들은 다른 나라의 또래와 편지를 주고받고, 그림을 그리고, 프로젝트에 참여하면서 글로벌 시민으로서의 소양을 쌓는다. 로버트 리드는 “한국의 학부모들은 배움이 가시적인 성과로 드러나기를 바라는 경우가 많지만, 언어를 통해 ‘무엇을 이해하고 연결할 수 있는가’라는 점도 동시에 배워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학습은 반드시 의미 있는 경험이어야 하는데, 직장인들은 계약을 협상하거나 프로젝트를 발표할 수 있

는 실용 영어, 대학생은 에세이에 도움이 되는 학문적 영어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유아기에는 놀이와 호기심을 통해 세상을 탐색하며 배우는 것이 중요해요. 어린 학습자들은 말을 하기 전에 ‘침묵기(silent period)’를 거칠 수 있는데, 이때 언어를 충분히 흡수할 시간을 주면 이후 눈에 띄게 도약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단기적인 성과보다 아이가 성장해가는 과정을 믿어줄 필요가 있습니다.”

문화로 잇는 외교

또 하나의 공공외교 죽은 문화예술이다. 주한영국문화원은 매년 전국 곳곳에서 문화행사와 예술교류 프로그램이 열어 시민들이 다양한 방식으로 영국과 연결될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세인트피어 연극 상영, 현대미술 전시, 디지털 아트 창작 캠프, 다큐멘터리 전시, 환경과 젠더를 주제로 한 시민 워크숍까지 다양하다.

예술을 통해 메시지를 던지고 공감대를 형성해 문화로 소통하는 전략이다. 전국 단위의 문화 네트워크를 확장하기 위해 지역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지난해 2월에는 충북 충주와 제주 서귀포를 잇는 ‘한영 문화도시 교류 세미나’를 개최했다. 행사에는 브래드포드·리즈·헐 등 영국의 문화도시 기획자들을 초청해 시민들과 함께 문화도시를 기획하고 운영하는 전략을 논의했다. 영국문화원은 “전 국민이 문화예술을 격차 없이 누리고 창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목표”라고 설명했다.

어학원을 통한 공공 부문과의 협력도 강화했다. 특히 올해는 ‘책읽는 서울광장’ 개장에 맞춰 특별 프로그램 기획으로 시민들이 도심 속에서 책과 영어, 문화를 함께 즐기는 기회를 마련했다. 또 서초구립내곡도서관과 어린이 영어 프로그램 ‘Hello, Britain’을 열어 영어 그림책과 만들기 활동을 통해 영국의 언어와 문화를 자연스럽게 체험하도록 했다.

문일요 더버터 기자

주한영국문화원의 50년 공공외교

BRITISH COUNCIL

1973년	주한영국문화원 개원 초대 원장 콜린 퍼차드는 1973년 한국으로 부임해 주한영국대사관 내에 별도 사무실 없이 문화원 개원 독립된 사무실을 마련한 건 1978년으로, 당시 주소는 서울 종로구 신문로 2가 1-222.	
1990년	제1회 영국유학박람회 개최 1990년 첫 개최 후 2016년 까지 문화원 주최로 진행. 영국 유학을 원하는 1만여 명이 행사장을 찾을 정도로 인기였으며, 당시 현지 교육 기관 관계자를 연결하는 유일한 창구 역할을 수행.	
2015년	어학원 분리 개원 연령대에 따른 전문화 영어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영어 교육 센터를 성인·어린이 전문 어학원으로 분리 개원. 영어를 통한 문화 간 이해, 세계시민교육, 포용성 교육 등 반영한 커리큘럼 확대.	
2017-2018년	‘한영 상호교류의 해’ 개막 ‘크리에이티브 퓨처스’라는 슬로건 아래 한영 예술기관 134곳, 예술가 820명이 전시·공연 프로젝트에 참여. 총 관객수 120만여 명 기록. 한영 예술가들의 예술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140만 유로 규모의 공동 기금을 조성해 21개 예술 프로젝트에 지원.	
2024-2025년	영국동문상 시상 영국 동문들의 공헌을 축하하고 기념하는 시상식 개최. 최종 수상자는 김현영(사회 변화 부문), 박소라(문화·크리에이티브), 박정호(과학·지속가능성), 이중훈(비즈니스·혁신) 등 4명.	

자료: 주한영국문화원

미래세대를 위한 사회공헌, 빈 곳을 찾아라

제2회 넥스트CSR포럼

더버터가 주최하는 ‘넥스트CSR포럼’이 지난달 17일 서울 종로 온드림소사이어티에서 열렸다. 지난 3월에 이어 두 번째로 열린 이날 포럼은 ‘미래세대를 위한 사회공헌’이라는 주제로 진행됐다. 행사에는 기업 사회공헌 담당자와 재단 담당자 70여 명이 참석해 사각지대 아동·청소년 관련 최신 이슈를 공유하고, 기업과 재단의 새로운 역할에 대해 논의했다.

‘달라진 현장’이라는 주제로 진행된 첫 번째 세션의 주제발표는 오혜정 총신대 사회복지학과 교수가 맡았다. ‘그때는 맞았지만, 지금은 달라진 것들’이라는 제목으로 최근 몇 년 새 달라진 상황을 중심으로 발표했다. 오 교수에 따르면, 매년 자립준비청년이 1000명 넘게 발생하고 있지만 정부나 기업의 지원은 대부분 ‘보호종료 5년 이내’ 기간에 집중돼 있다. 그는 “지금 필요한 것은 당장의 자립이



제2회 넥스트CSR포럼에는 기업 사회공헌 담당자와 재단 관계자 70여 명이 참여했다. 김용재 기자

아니라, 지원 기간이 종료된 후에도 삶을 스스로 헤쳐나갈 수 있는 지속 가능한 자립 역량을 키우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특히 심리·정서적 문제는 자립준비 청년이 체감하기 어렵고 스스로 해결하기도 가장 어려운 부분”이라고 말했다.

자립준비청년이나 아주배경청소년들이 장애나 경계선지능 등 중복적 어려움에 처해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오 교

수는 “기업이 사회공헌 프로그램을 설계할 때는 아동·청소년 당사자들이 가진 어려움과 욕구를 세밀하게 파악해야 한다”면서 당사자 중심의 정책과 사업 설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어진 패널토론에서 자립준비청년 당사자 모임인 ‘아디주 커뮤니티’의 조현수 대표는 “자립준비청년이면서 느린 학습자(경계선지능인)인 경우도 많고, 영

케어려인 경우도 많다”면서 “이런 청년들을 ‘다중취약청년’이라고 부르는데, 일반적인 자립준비청년 지원 프로그램으로는 도움을 받기 어렵다”고 밝혔다.

영케어러 당사자인 오현아씨는 “기업들이 영케어러를 지원하고 싶은데 발굴이 어렵다는 이야기를 많이 한다”면서 “아이들 자신도 자신이 영케어러라는 것을 인지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두 번째 세션 ‘달라진 사회공헌’에서는 한우재 숭실대 사회복지학부 교수가 연단에 섰다. 한 교수는 100대 기업 사회공헌 프로그램을 분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최근 아동·청소년 대상의 사회공헌 트렌드를 짚었다. 한 교수는 “미래 세대를 사회공헌의 특징은 양질의 교육 콘텐츠와 멘토링을 제공하면서 취업이나 자립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한다는 점”이라며 “최근 증가 추세인 심리·정서 지원 프로그램의 경우 취약계층 대상으로 한정하지 않고 보통의 청소년들이 겪

을 수 있는 문제로 보고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전문가 패널토론에서 이상현 행복나눔재단 본부장은 “자립준비청년에게 진로 교육을 하면서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 고민을 거듭하다 보니 지원 시점을 더 어린 시기로 앞당겨야겠다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했다. 이의현 사단법인 점프 설립자 겸 CWO는 “임직원의 전문성과 특수성을 사업과 연관시키는 것이 포인트”라며 “아동·청소년 대상 멘토링 사업을 한다고 했을 때 멘토 선발에 인사 담당 부서장을 참여시키거나 지역 본부에 맞는 프로그램을 기획하는 방식으로 임직원들의 관심을 끌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시원 더버터 편집장은 “넥스트CSR포럼은 사회공헌 실무자들이 현실과 이상 사이에서 고민을 나누는 장”이라며 “앞으로도 CSR의 다음 단계를 함께 설계하는 자리를 지속해서 만들겠다”이라고 했다. 문일요 더버터 기자

“보고서에 갇혀있던 CSR, 유튜브로 보여드립니다”

이영준 LG화학 글로벌CSR팀장 인터뷰

“우리도 유튜브 해야 하는 거 아니야?”
기업의 사회공헌 사업을 알리고 싶은 담당자들이 흔히 하는 고민이다. 큰돈들 이지 않고 대박을 친 충주시 공식 채널 ‘충TV’처럼 유튜브를 통해 홍보에 성공한 사례가 잇따르면서다. 잘 되는 채널들의 공통점은 끌고 나가는 ‘얼굴’이 있다는 것. 하지만 기업에서는 쉽지 않은 도전이다. 충주맨처럼 직원 한 사람을 지목해 앞세우는 일이 부담스럽기 때문이다.

최근 사회공헌 담당자들 사이에서 회자되는 채널이 있다. LG화학 글로벌 CSR팀이 운영하는 ‘대답해’다. 이영준 팀장이 채널의 얼굴을 맡았다. 업계 관계자들이 알아두면 좋을 글로벌 트렌드부터 ESG경영, 에너지, 환경, 정신건강, 저출산, 고령사회 등 사회 전반의 공익 이슈를 풀어낸다. 일종의 ‘CSR 지식채널’이다. 기획부터 출연까지 CSR 실무자가 직접 맡는다는 게 특징이다.

지난달 26일 서울 여의도 LG트워타워에서 만난 이영준 LG화학 글로벌 CSR팀장은 “기업 경영의 트렌드가 급변하면서 CSR이라는 말이 점점 멀어지는 것 같았다”며 “기업의 사회공헌이 얼마나 확장 할 수 있는지, 또 얼마나 진정성 갖고 움직이는지 보여주고 싶었다”고 말했다.

-카메라 앞에 서는 건 익숙해졌나요.

“많이 어색하죠. 주제별 전문가들 모시고 대답 형식으로 이야기를 나누는 포맷으로 자리를 잡으면서 부담이 확 줄었어요. 출연자들이 이끌어 주기도 하니까요.”

-최근 채널명이 바뀌었나요.

“사실 ‘대답해’는 채널의 대표 코너 중

하나였는데, 최근 아예 채널명으로 사용하기 시작했어요. 여러 실험적인 시도를 한 결과인데요. 지난 몇 년간 과학 유튜버 궤도, 물리학자 김상욱 교수, 건축가 유현준 교수 등을 모시고 대중 강연 형식으로도 진행해보고 대학생이 직접 출연하는 콘텐츠도 해봤어요. 그런데 조회수가 가장 높았던 건 ‘대답해’였어요. 의외였죠.”

-반응이 가장 좋았던 콘텐츠는요.

“전기차와 ESG 같은 전문적인 주제가 반응이 좋았어요. LG화학 CSSO(최고 지속가능전략책임자) 고윤주 전무와 전기차 전문기업 이볼루션의 조현민 대표가 함께 출연했는데 글로벌 ESG 정책 변화가 기업 경영에 미치는 영향이라든가 미국의 전기차 전환을 촉진하는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축소 움직임과 유럽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간소화에 따른 변화 같은 내용이었어요. 상당히 어려운 주제인데도 조회 수 5만을 넘었죠. 공부한다는 마음으로 접근하는 시청자가 많은 것 같아요.”

-가볍고 말랑말랑한 콘텐츠가 인기가 좋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네요.

“난임 이슈를 다룬 콘텐츠도 반응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낮은 출산율이 사회 문제로 여겨지지만 또 아이를 원하는 부부들도 많거든요. 그런데 난임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은 여전히 남아있죠. 그래서 난임 치료 경험자인 김여희 작가와 SC사 업부의 조병욱 책임이 출연해 난임에 대한 정확한 정보와 현실적인 조언을 전달했어요. 사람들이 원하는 건 LG화학이 난임 치료 시장점유율이 1위라는 정보보

다 난임 가족을 위한 응원과 공감의 메시지가 아닐까 싶었어요.”

-댓글은 살펴보나요.

“영상마다 수백개씩 달리는데, 대부분 내용이 착해요. 나쁜 말들이 거의 없습니다. 마냥 좋아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대중들이 많이 본다면 거친 말들도 있을 텐데, 업계 관계자나 사회문제에 관심이 많은 분이 주로 시청하는 것 같아요. 일반 대중들도 CSR에 보다 쉽게 다가갈 수 있도록 시청자층을 넓게 확대하는 게 목표입니다.”

-글로벌CSR팀에서 직접 유튜브 채널을 기획해 운영하는 사례가 거의 없는데요. 계기가 있었나요.

“사실 개인적인 동기가 컸어요. 글로벌 기업들을 보면 CSR 부문이 기업의 핵심 역할을 하고 있는데, 국내 기업들은 한번쯤 ‘거쳐가는’ 부서로 인식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 사회공헌 담당자들도 지쳐 있는 분위기였고, 10년간 CSR을 담당하면서 ‘이 일이 정말 중요하다는 걸 보여주고 싶다’는 마음이 있었어요.”

-기업 내부에서 글로벌CSR팀이 인기 부서는 아닌가 봐요.

“글로벌 기업 리더들은 CSR을 기업의 생존 전략으로 여기고 힘을 실어줍니다. 해외 사업 비중이 높은 기업들은 아무래도 현지 정부나 국제기구로부터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굉장히 높은 수준으로 요구받으니까요. 국내에선 아직 그 정도 분위기는 아니지만, 기업이 해결해야 할 사회문제를 스스로 찾고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지 고민하는 일이는 중요한 과업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내부 임직원과 대중이 모두 공감할 수 있는 CSR 콘텐츠, LG화학의 산업과 사회



LG화학 글로벌CSR팀에서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대답해’의 기획 전반을 총괄하는 이영준 팀장. 그는 영상 콘텐츠 진행까지 맡고 있다.

김용재 기자

공헌이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콘텐츠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위에서 채널에 관한 가이드라인이 내려 오진 않나요.

“채널 이름이나 코너에도 회사가 너무 드러나지 않으니까 ‘LG화학의 업과 연계해 콘텐츠를 기획해 달라’는 정도죠 (웃음).”

-유튜브 채널은 기존 홍보 방식과 어떤 차별점이 있을까요.

“유튜브는 열린 공간이에요. 누구나 들어와서 볼 수 있죠. 기업의 CSR이 더는 폐쇄적인 보고서 안에만 있어선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저희 팀 이름이 글로벌CSR팀이기도 하잖아요. 앞으로는

글로벌 이슈와 연결된 콘텐츠를 많이 다루고 싶어요. 전쟁·난민·기후위기 같은 주제에 CSR 관점과 산업을 엮는 식이죠. 평소 국제 문제에 관심 없던 사람들도 ‘나의 문제’로 느끼도록 하는 게 기업의 사회적 책임 중 하나라고 생각해요.”

-어떤 방향으로 채널을 키워갈 계획인가요.

“채널의 누적 조회 수가 100만 회를 넘었습니다. LG화학은 B2B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대중을 직접 만날 기회가 많지 않아요. 우리 채널이 단순한 홍보 수단이 아니라 대중과 소통하는 하나님의 통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더 많은 사람이 ‘CSR을 보는’ 세상을 만들고 싶어요.”

문일요 더버터 기자

공공기관 경영평가, ‘사회공헌’이 핵심이다

공기업 경영평가단장

곽채기 동국대 교수 인터뷰

A등급 받은 곳은 웃었고 D·E등급 받은 곳은 낙담했다. 지난달 20일 발표된 ‘공공기관 경영평가’ 결과에 희비가 엇갈렸다. 평가를 진행한 곽채기 동국대 행정학과 교수(공기업 경영평가단장)를 2일 만났다.

그는 “사회공헌 활동이 공공기관 경영평가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말했다. 7월 18일 서울 양재동 엘타워에서 열리는 ‘사회공헌 파트너십 포럼’에서 이 주제로 기조 발표를 할 예정이다. 포럼은 보건복지부가 주최하고 한국사회복지협의회와 더버터가 주관한다.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사회공헌’ 항목은 어떤 의미를 지나는가.

“2010년에 조직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국제 가이드라인 ‘ISO 26000’이 발행됐다. 그때 처음 ‘사회적 책임’이라는 지표가 공공기관 경영평가 지표로 도입됐다. 이후에 점점 사회책임경영 요소가 확대되다가 폭발적으로 커진 게 문재인 정부 때다. 2017년 집권한 뒤 ‘사회적 가치’ 영역을 공공기관 경영평가의 핵심영역으로 들었다. 100점 만점에 무려 30점. 공공기관의 핵심 역할이 바로 ‘사회적 가치 구현’에 있다는 의미다. ‘상생협력 및 지역발전’ 지표도 이때 처음 독립된 지표



공기업 경영평가단장을 맡고 있는 곽채기 동국대 행정학과 교수.

하고 지역 사회에도 도움이 돼야 한다. 원·원이 중요하다.”

-평가하면서 ‘사회공헌 사업을 잘한다’는 느낌이 들었던 곳이 있었다면.

“한국수력원자력이 모범적인 사례라고 볼 수 있다. 한수원은 사회공헌을 전담하는 ‘상생협력처’라는 독립된 조직을 가지고 있다. 외형적으로 예산 규모도 크고 프로그램 질도 좋은 편이다. 지난해 기준 한수원이 사회공헌 활동에 투입한 예산이 100억원이다. 2025년에는 120억원을 돌파했다. 단일 공기업 중 예산이 가장 많다.”

-예산이 적은 곳들은 어떻게 해야하나.

“실제로 한수원처럼 예산을 많이 쓰는 곳이 별로 없다. 정말 많아야 연 30억~40억원 정도? 이럴 때는 협력해서 같이 하는 것도 방법이다. 같은 지역에 있는 공공기관들이 함께 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10개 공공기관이 모여 200억~300억원 규모 펀드를 만들면 지역 발전을 위해 실질적으로 도움되는 일을 할 수 있다.”

-기업들은 같이 하는 게 익숙지 않을 텐데.

“지방혁신도시의 경우 같은 건물에 모여 있기 때문에 어렵지 않을 것 같다. 올해 평가에서도 공공기관들이 사회공헌 사업을 할 때 지자체·지역주민·시민·사회·기업이 함께 ‘협력적 네트워크’를 구축하려는 노력을 얼마나 했느냐가 중

요한 평가 착안 사항이었다.”

-‘상생협력 및 지역발전’ 안에 ‘기부·자원봉사’ 항목이 새로 생겼다. 부담을 느끼는 공공기관들도 있다.

“2024년 편람에 추가되면서 올해 처음으로 기부·자원봉사에 대한 평가가 진행됐다. 봉사활동 부분이 특히 약한 것 같다. 공공기관들은 의무공시 항목에 이미 기부·자원봉사가 들어가 있었지만 신경 쓰는 영역은 아니었다. 그런데 경영평가에 기부·자원봉사가 포함되면서 갑자기 중요해졌다. 역으로 생각해 보면 경영평가에 들어간 것 자체가 인센티브가 될 수도 있다. 기관 입장에서도 임직원의 봉사활동을 관리해야 할 필요성이 생겼다.”

-사회공헌 영역 점수 때문에 경영평가 등급이 바뀌기도 하나.

“당연히 그렇다. 평가에서는 0.01점 차이로도 등급이 갈린다. 이렇게 생각하면 ‘상생협력 및 지역발전’에 배정된 5점은 엄청 큰 점수다.”

-경영평가를 준비하는 공공기관에 조언하고픈 말이 있다면.

“2025년 편람에 추가된 게 있다. 지방자치단체·지역대학과의 협력사업 발굴이 새롭게 들어갔다. 공공기관의 사회공헌 사업이 시너지를 극대화하려면 파트너들이 필요하다. 각각 전투하지 말고 협력하라는 뜻이다.” 김시원 더버터 기자

로 들어왔다. 배점은 5점. 이 지표가 우리에게 흔히 말하는 ‘사회공헌’ 영역이다.”

-새 정부에서는 어떨까. 사회공헌에 대한 기준이나 평가가 달라질까.

“윤석열 정부 때도 ‘상생협력 및 지역발전’ 항목은 여전히 5점 정도의 가중치를 유지했다. 정권 변화와 관계없이 공공기관의 핵심 역할로 자리 잡은 것이다. 이제 명 정부의 평가 지표 개편은 올 하반기가 될 전망이다. 문재인 정부 때 사회적 가치를 강화했듯이 이번에도 강화될 가능성이 높다.”

-사회공헌 영역에는 정량적 요소도 있지만 정성적 요소도 있다. 이건 어떻게 평가하나.

“상생협력 및 지역발전” 항목을 보면

종교시설을 돌봄시설로... 신앙이 사회를 돋는 방식

신앙기반 필란트로피의 진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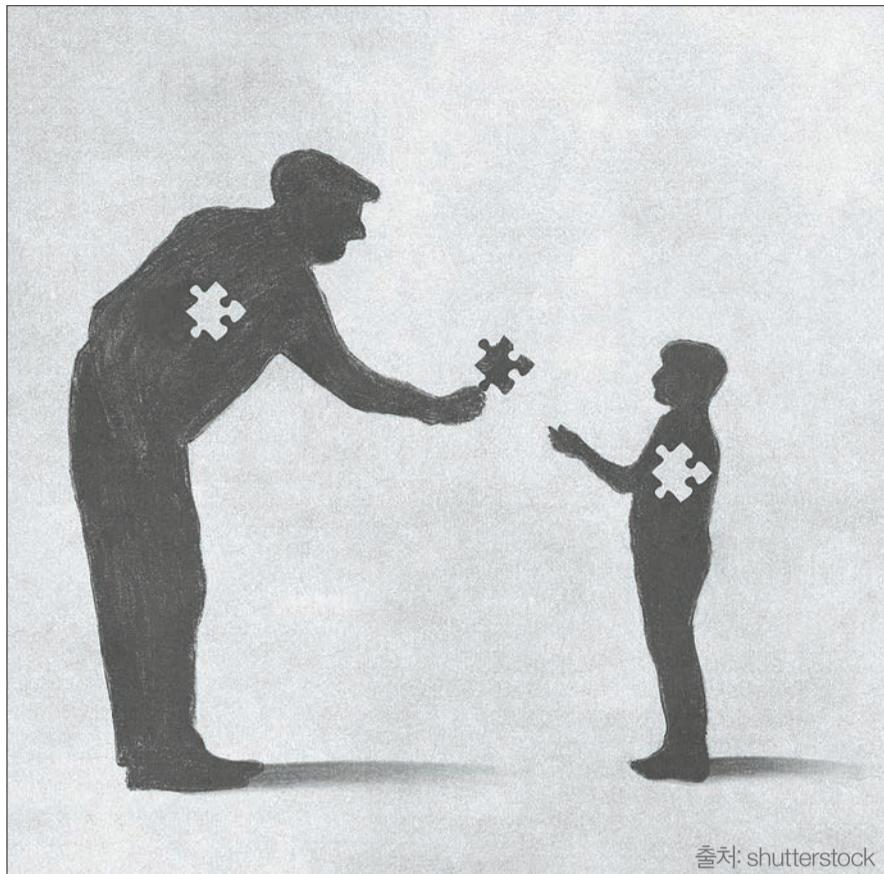
한국 사회에서 '신앙기반 필란트로피(Faith-Based Philanthropy)'는 그 가치와 역할이 저평가돼 있다. 종교기관 주도하는 사회공헌 활동이 우리 사회를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끄는 동력이 되고 있지만 역설적으로 '종교적'이라는 이유로 공적 담론에서 배제되는 경우가 많았다.

신앙기반 필란트로피는 단순한 '자선'을 뛰어넘는 개념이다. 종교의 가치와 철학이 출발점이지만, 그 과정이나 방법은 매우 전략적이다. 신앙에 기반해 사회문제를 정의하고 이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체계적이고 장기적인 활동을 벌이는 것을 신앙기반 필란트로피라고 한다.

신앙이 사회를 돋는 방식은 시대의 흐름 속에서 진화해 왔다. 국내 종교기관들은 무료급식소 운영, 도시락 배달, 재난 구호와 성금 모금, 저소득층 물품 지원 등 전통적인 자선 방식으로 지역을 도왔다. 최근에는 활동 범위와 성격이 달라지고 있다. 본질적이고 구조적인 문제에 뛰어들고 있다. 한국 사회의 최대 난제로 꼽히는 '저출산'을 해결하기 위해 지역의 교회와 사찰을 '돌봄시설'로 전환하고 있다.

종교시설, 사회적 자원이 되다

대부분의 종교시설이 주말에는 복지이고 주중에는 한산하다. 비어 있는 시설을 '사회적 자원'으로 활용할 방법은 없을까. 올해 초 법령 하나가 개정되면서 길이 열렸다. 국토교통부령 제1439



출처: shutterstock

호. 종교시설들을 영유아·노약자·장애인 돌봄시설로 사용하는 경우 지방건축위원회 심의를 생략한다는 내용이다.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종교계가 낸 아이디어가 실제 법령 개정으로 이어진 것이다.

종교계의 출산장려운동은 2000년대 CTS기독교TV가 시작했다. 2022년 '저출생대책국민운동본부'(이하 출대본)가 출범하며 큰 전환점을 맞게 된다. 기독교뿐 아니라 불교, 원불교 등 다양한 종단 지도자들이 출대본에 합류했다. 종교의 경계를 넘어 공동의 메시지를 내고 함께 대응하기 시작했다.

출대본은 저출산 문제의 핵심을 '돌봄'에서 찾는다. '아이를 많이 낳게 하는 것'이 아니라 '돌봄에 대한 부담을 줄이는 것'을 해법으로 제시했다. 전국 각지에 모세혈관처럼 뻗어 있는 종교시설들을 '돌봄시설'로 활용하자는 실질적인 대안을 내놨다. 문제는 '지방건축위원회 심의'라는 행정의 벽. 출대본은 이 절차를 생략할 수 있게 하는 법령 개정을 추진했다. 전국 40만명이 입법 청원에 동참했고 올해 1월 국토부 시행규칙이 개정됐다. 종교시설의 사회적 활용 가능성에 새로운 길이 열린 셈이다.

전문가들은 이번 법령 개정이 국내 신앙기반 필란트로피의 '성장'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김도영 CTS 총괄부사장은 "제도를 바꿔 문제해결을 시도했다는 것 자체가 단순한 자선을 넘어서는 구조적 접근"이라며 "행정 절차를 간소화해 정부·지자체·기업과의 연계 가능성을 높였다는 점도 의미 있다"고 말했다.

내부형, 연결형을 넘어 '협력형'으로 진화
최근 두 달간 종교계, 지자체, 비영리, 대학 등 전문가들과 가진 간담회 내용을 바탕으로 국내 '신앙기반 필란트로피'를 3단계로 정리했다. 신앙이 사회적 역할을 확대해가는 방식에 따라 ▶ 1단계: 내부형 ▶ 2단계: 연결형 ▶ 3단계: 협력형으로 구분했다. '신앙'이라는 내적 동기는 유지되면서 종교계 내부에 머물러 있던 자원들이 점점 밖으로 향하는 흐름이다.

1단계인 '내부형'은 종교법인 혹은 종단과 연결된 복지법인이 직접 사업을 수행하는 형태로, 기관 내부의 자원으로 운영된다. 교회나 사찰이 운영하는 무료급식소 등이 해당한다. 2단계인 '연결형'은 종교적 뿐만 가지고 있지 만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NGO가 진행하는 사업이다. 개발협력 등 전문성 있는 프로그램이 대부분이다.

3단계인 '협력형'은 종교기관이 정부·지자체·기업·비영리 등과 업무협약을 맺고 사업을 공동으로 설계하거나 운영하는 경우다. 기후위기, 지역소멸 등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업에 유리하다. 공공 예산과 기업의

CSR 자금 등이 더해져 큰 시너지를 낼 수 있다는 게 강점이다.

그간 국내 종교계의 자선은 1단계와 2단계에 머물러 있었다. 가장 최근에 등장한 게 3단계 협력형이다. '저출산'이라는 난제를 풀기 위해 종교계가 택한 방식도 바로 협력형이다.

2023년 설립된 사단법인 '행복한출생든든한미래'(이하 행든)는 종교시설의 돌봄시설 전환을 대표 사업으로 내세우는 비영리단체다. 지난 5월 저출산·고령화 정책을 총괄하는 정부 컨트롤타워인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와 업무협약을 체결,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행든은 종교기관-지역사회-민간기업 등을 연계한 새로운 돌봄 모델을 전국에 전파하는 중이다. 지역의 종교기관들을 직접 찾아가 설명회를 열고 전환을 위한 매뉴얼을 제공한다. 공간 구성과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컨설팅도 해준다. 지난 5월에는 부산 감전교회가 행든을 통해 '아이행복터' 현판을 달았다. 종교시설을 돌봄시설로 전환한 행든의 첫 컨설팅 사례다. 감전교회는 여름방학인 8월부터 지역 아동들을 대상으로 돌봄 프로그램을 진행할 예정이다.

최근 행든은 '저출산 이슈'를 함께할 기업 파트너들을 모색하고 있다. 감경철 행든 이사장은 "종교가 가진 자원을 사회와 어떻게 나눌 것인가는 모든 종교가 고민하는 문제"라며 "앞으로 행든은 종교기관의 자원을 정부·기업과 연결하는 '중간지원조직'의 역할을 수행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시원 더버터 기자

"다음 세대가 사라지면, 이나라도 없습니다"

행복한출생든든한미래

감경철 이사장 인터뷰

한 사람의 신념이 국가 정책을 움직일 수 있을까. 30여 년 전, 감경철 행복한출생든든한미래 이사장이 저출산 문제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을 때만 해도 사람들은 고개를 저었다. 아이가 줄어든다고 나라가 사라지냐는 반응이 많았다. 당시 1990년대 초만 하더라도 합계출산율은 1.7명대로 지난해 기준 0.75명의 2배 넘는 수준이었다.

그는 기업가로 시작해 1990년대 유아교육연구소를 설립해 전문가들을 모으고, CTS 대표를 맡은 이후에는 종교계와 시민사회를 잇는 '출생장려운동'을 30년 넘게 이어왔다. 최근에는 국토부 법령 개정을 이끌며 전국 곳곳의 종교시설을 돌봄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길도 열었다. 지난 3일 서울 동작구 CTS 사옥에서 만난 감 이사장은 '역대 정부마다 저출산 대책을 쏟아부었지만, 인구 감소 흐름을 막기엔 역부족이었다'며 '이제라도 인구위기를 돌파할 국민운동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했다.

-정부도 막지 못한 인구 감소 문제에 집중하는 이유는 뭘까요.

"기업을 경영하면서 사람이 나라의 미래라는 확신이 생겼습니다. 자연스럽게 다음 세대와 유아 교육에 관심을 갖



감경철 이사장은 종교시설을 돌봄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국토부 시행규칙 개정을 이끌었다. 그는 "종교시설을 아이들과 노약자, 장애인 공간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용재 기자

게 됐지요. 시작은 1993년 '화곡유아연 구소' 설립입니다. 교육 전문가들 모시고 연구를 후원하고 교재를 만들었어요. 그러던 중 출산율이 급격히 떨어지는 걸 보면서 위기감을 느꼈습니다. 경제·국방·사회 전반에 흔들릴 수 있는 국가 존립의 위기였습니다. '나라 살리기 운동'이라는 마음으로 해왔는데 벌써 30년 됐네요."

-당시는 지금보다 더 무관심하거나 비판적인 시선도 많았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저출산 문제를 남의 일로 보는 분위기가 컸습니다. 냉소도 있었

지만, 누군가는 해야 한다고 믿었어요. 2006년에는 '생명과 희망의 네트워크', 2010년 '출산장려국민운동본부', 그리고 2022년에는 종교계와 시민사회, 경제계, 교육계를 아우르는 '저출생대책 국민운동본부(출대본)'도 출범시켰습니다. 멈추지 않으니까 뜻을 함께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었지요."

-단순히 "아이 낳자"고 말하는 걸 넘어서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청년들의 현실을 무시한 출산 장려는 오히려 역효과를 냅니다. 주거 불안, 일자리 불안, 육아 불안. 이 세 가지가

해결되지 않으면 출산은 고통이 됩니다. 특히 영유아 보육 문제는 심각해요. 3세 미만 어린아이를 맡길 어린이집이 없어서 부모들이 밭을 동동 구릅니다. 작년에만 어린이집 1500곳이 문을 닫았다고 합니다. 전국에 어린이집이 아예 없는 읍면동은 600곳이 넘습니다. 이런 현실을 바꾸지 않으면 출산 기피는 계속될 겁니다."

-출산율이라는 수치보다 이면의 구조와 문화에 집중해야 한다는 뜻인가요.

"맞습니다. 출산율이 일시적으로 반등했다는 최근 통계는 반갑지만, 숫자에만 집착하면 본질을 놓칠 수 있어요. 문제의 뿌리는 주거난과 보육공백, 공동체 해체에 있습니다. 예전에는 온 마을이 아이 하나를 함께 키웠죠. 지금은 그게 무너졌어요. 주거 안정은 정부가 해결할 수 있다고 봅니다. 양육은 우리 모두의 뜻입니다. 가정부터 학교, 종교기관, 기업까지 모두가 공동체로서 책임을 나눠야 합니다."

-최근 종교시설 유류 공간을 돌봄시설로 쓸 수 있도록 법령이 바뀌었습니다. 이 과정에 깊이 관여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아이를 마음 편히 맡길 곳을 만들려면 막대한 돈이 필요하는데, 그게 쉬운 일은 아니지요. 그래서 기존 인프라를 활용해야 합니다. 종교시설은 전국 모든 읍면동에 있습니다. 공간도 넓고, 평일

에는 비어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종교시설을 돌봄공간으로 전환하자'는 제안을 했고, 전국 단위의 서명운동을 벌여 40만 명이 뜻을 모아주셨어요. 그 힘으로 국회를 설득했고, 올해 1월 건축법 시행규칙이 개정됐습니다. 전국 10만 여 개 종교시설이 돌봄공간으로 바뀔 수 있는 길이 열린 겁니다."

-저출산 대응 사업은 많지만 대부분 단기 성과에 그칩니다. 지속가능성을 만들기 위한 핵심은 무엇일까요.

"세 가지입니다. 진정성 있는 철학, 효율적인 모델, 그리고 일관된 정책. 돌봄 공간을 위한 새 건물을 짓는 대신 종교시설을 활용하면 효율적입니다. 또 돈벌이가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일관된 정책으로 지원할 수 있습니다. 정부 차원에서도 저출산 대응을 종괄하는 통합 기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부처별로 각자 다른 접근을 하면 힘이 분산되거든요."

-마지막으로 결혼과 출산을 포기하는 청년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요.

"지금 겪는 현실이 얼마나 고된지 압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마세요. 아이를 낳고 기르는 일이 다시 '기쁨'이 될 수 있도록 바꿔 나가겠습니다. 여러분이 꾸리는 가정이 건강하고 든든한 미래가 되도록, 저와 같은 사람들이 앞에서 길을 닦겠습니다. 함께 힘을냅시다."

문일요 더버터 기자

필란트로피 디자인으로 나눔을 실현합니다

일상의 기부자들 배상민 KAIST 교수 인터뷰

15년 만의 귀국길이었다. 미국 뉴욕에서 세계적인 디자이너 삶을 정리하고 택한 한국행. 고향에 전화를 걸었다. 전화를 받아 든 모친은 말했다. “내가 공항에 마중 가야겠느냐, 아니면 호스피스 병원 봉사를 가는 게 맞겠느냐”

배상민 KAIST 산업디자인학과 교수에게 나눔과 봉사는 주변에 공기처럼 존재했다. “벌써 20년 전 일이지만 생생하게요. 자식보다 봉사가 먼저인 분이에요. 얼마나 지독한데요(웃음). 호스피스 봉사활동을 73세에 그만두셨어요.”

뉴욕 파슨스디자인스쿨의 최연소 교수로 수많은 글로벌 기업의 상업 디자인을 맡았던 그는 사회문제 솔루션을 디자인으로 구현하는 활동을 20년간 이어오고 있다. 지난 1일 대전 KAIST 연구실에서 만난 그는 “디자인으로 아프리카 식수 문제를 해결하고 경제적 자립을 이룰 수도 있다”며 “디자이너의 지식과 경험을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쓰는 걸 ‘필란트로피 디자인(philanthropy design)’이라고 부른다”고 말했다.

“나눔 인생에 가족의 영향이 큰 것 같습니다.

“가족들이 기부와 나눔에 굉장한 열의가 있어요. 어머니도 그렇지만, 외가 식구들이 대서양의 작은 섬 라스팔마스에서 휴리스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람마다 수많은 방식으로 나눔을 하는데, 저는 재능과 시간을 기부하는 겁니다. 제품 수익금으로 금전적인 기부도 하지만요.”

‘필란트로피 디자인’으로 세계 권위의 3

대 디자인상을 모두 받았습니다.

“지금까지 받은 상이 70개 넘을 텐데요. 뉴욕에서 디자인할 때 받은 게 2개, 나머지는 필란트로피 디자인으로 받았어요. 학교에서 학생들과 연구해서 만든 의미 있는 작품들이 오히려 더 주목받은 거죠. 디자인의 본질은 ‘진짜 문제를 발견하고 해결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디자인도 사람을 향해야 하는 거죠.”

“하나만 소개한다면요.

“딜라이트(d'light)라는 전등인데요. 전등갓의 끝부분을 잡고 회전시키면 형태가 다양하게 변하면서 밝기를 조절할 수 있어요. 전구가 완전히 노출돼 가장 조도가 높을 때 전등갓이 하트모양을 이룹니다. 사랑이 있을 때 우리 사회가 밝아진다는 의미예요.”

배 교수는 ‘나눔 프로젝트’라는 이름으로 2005년부터 디자인을 통한 사회공헌 활동을 해왔다. 월드비전과 협력해 제품을 개발하고 판매 수익금 전액을 저소득층 아동의 교육에 기부한다. 지금까지 제품 판매로 기부한 금액은 17억원에 이른다. 올해는 탄자니아에 정수 장치를 만들어 보급할 계획이다.

“직접 만든 제품을 나누는 방식이 특이합니다. 제품 디자인의 기준이 있나요.”

“조건이 까다로워요. 우선 아름다워야 하고, 새로워야죠. 기능적으로는 좋은 동시에 반제품 형태로 만들 수 있어야 해요. 현지에서 조립하는 방식으로요. 그래야 부품 수리도 할 수 있어요. 여기에 의미와 상징이 더해지면 ‘굿디자인’이

됩니다.”

“올해 프로젝트는 뭘까요.”

“간단하게 말해 정수기예요. 아프리카 어느 마을에 가도 둑근 플라스틱 페인트통이 있는데, 오염된 물을 길어다가 먹는 데 씁니다. 규격에 맞춰 뚜껑처럼 얹으면 태양열로 물이 끓여올리지고 그 과정에서 필터를 통해 물이 정수됩니다. 개인용은 하루 1L, 대용량 커뮤니티용은 10리터 나옵니다. 전기 장치가 없어 반영구적으로 쓸 수 있고, 황토로 필터를 제작할 수 있게 다 알려줄 계획입니다. 작은 가내수공업 공장을 만들어서 이웃마을에 판매하고 커뮤니티가 자립할 수 있도록 말이죠.”

“연구 개발 비용도 상당할 텐데요.”

“작년부터 월드비전과 진행하고 있는 ‘파니시더잡’ 프로젝트 외에는 지금까지 모두 사비로 충당했어요. 돈 벌어서 만드는 거예요(웃음). 학교에 과학적인 지식을 보태주실 전문가들도 많고요. 연구하기 얼마나 좋은 환경이에요. ‘내가 왜 계속하고 있을까?’ 생각도 해봤는데, 한국인의 정체성이 결국 나눔이에요. ‘홍의인간(弘益人間)’.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하라는 게 반만년 전 고조선 건국이념이잖아요.”

“나눔 프로젝트를 함께 진행하는 학생들의 반응은 어떤가요.”

“처음에는 과제로 시작한 일이지만 프로젝트 결과로 누군가의 삶을 바꿀 수 있다는 걸 체험하면 표정이 달라져요. 그래서 연구실 학생들은 필란트로피 디자인 제품을 내놓거나 아프리카에 직접 제품을 설치하러 다녀와야 출업할 수 있어요(웃음). 저도 보람이 크고, 계속 이어가고 싶어요.”

대전=문일요 더버터 기자



배상민 KAIST 교수는 2005년부터 20년간 ‘나눔 프로젝트’로 디자인 제품 판매 수익금을 기부하고, 개발도상국의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제품을 직접 개발·보급해 왔다.

김용재 기자

더버터, 국내 언론사 최초 유엔 여성역량강화원칙 ‘웹스’ 가입

(WEPS)

더버터가 국내 언론사 최초로 유엔(UN)의 ‘여성역량강화원칙(Women's Empowerment Principles, WEPS)’에 가입했다.

더버터는 지난달 17일 서울 종로구에 있는 유엔여성기구(UN Women) 지식·파트너십센터를 방문해 WEPS(이하 웹스) 가입에 서명하고 조직 내 성평등 실현과 지역사회로의 성평등 문화 확산에 동참할 것을 약속했다.

웹스는 유엔여성기구와 유엔글로벌 콤팩트가 2010년 공동 발족한 이니셔티브다. ‘성평등을 위한 노력은 더 좋은 기업을 만든다(Gender Equality Means Better Business)’는 슬로건을 바탕으로 기업이 경영 전반에서 성평등한 조직문화와 여성역량강화를 촉진할 수 있는 방법론을 제공한다. 2025년 6월 기준 전 세계 160여 개국에서 총 1만181개 기업이 웹스 이니셔티브에 동참하고 있다. 마이크로소프트·아마존·네슬레·코카콜라·마스터카드·월마트 등 주요 글로벌 기업들이 웹스 가입을 선언했으며, 국내에서는 삼성전자·현대자동차·롯데지주·유한킴벌리·아모레퍼시픽 등 92개 기업이 서명했다.

더버터는 한국을 대표하는 공익전문 매체로, 사회문제를 지적하는 것을 넘어 대안을 제시하고 해결 과정을 기록하는 ‘솔루션 저널리즘(Solutions Journalism)’을 지향한다. 특히 성평



더버터(TheButter)의 유엔 ‘여성역량강화원칙(WEPS)’ 가입식이 지난달 17일 서울 종로구 유엔여성기구 지식·파트너십센터에서 열렸다.

등, 다양성 존중, 여성의 잠재력 발굴, 역량 강화, 경제적 자립 등을 중요한 어젠다로 삼고 있다. 한국 내 다문화 가정과 한부모가정 여성 지원 사업부터 해외 저개발국 여성의 삶을 개선하기 위한 솔루션 등 여성의 삶을 살펴보는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다양한 사례들을 기사화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세계 최대 규모의 여성 창업 경진대회인 ‘쉬 러브스 테크(SLT)’ 한국 라운드 미디어 파트너로 참여해 유망한 국내 여성 창업가들을 인터뷰하고, 여성 창업 생태계를 활성화하기 위한 지역사회 이니셔티브와

화하기 위한 심층 취재를 진행했다.

웹스에서는 가입한 기업들이 지켜야 하는 7가지 원칙을 제시하고 있다. ▷기업 임원들이 성평등을 위한 노력에 동참할 것 ▷직장 내에서 모든 여성과 남성을 동등하게 대하며, 인권과 평등을 존중할 것 ▷모든 여성과 남성 근로자의 건강·안전·복지를 보장할 것 ▷여성을 위한 교육·훈련·전문성 개발을 장려할 것 ▷여성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개발·공급망·마케팅 전략을 구축할 것 ▷성평등을 위한 지역사회 이니셔티브와

옹호 활동을 펼칠 것 ▷양성평등 달성을 측정하고 공시해 투명성을 강화할 것 등이다. 더버터는 이 같은 원칙을 준수하며 조직 운영과 취재·보도 전반에 성평등 가치를 반영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부 프엉리유엔여성기구 지식·파트너십센터 소장 직무 대행은 “성평등은 단지 조직 내의 다양성과 포용성을 높이는 것을 넘어, 지속가능하고 혁신적인 사회를 만드는 핵심 요소”라며 “웹스는 기업과 조직이 성평등을 촉진하고, 여성의 권한 강화를 조직문화와 경영 전략 전반에 통합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글로벌 플랫폼”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한국 미디어 기업 최초로 웹스에 가입해 성평등 메시지 확산에 기여하고자 하는 더버터의 결단에 깊은 감사를 전한다”며 “앞으로도 더 많은 국내 기업과 미디어가 웹스 커뮤니티에 동참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시원 더버터 대표는 “사회 전반에 성평등 가치를 실현하고 확산하기 위해서는 언론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면서 “웹스 가입을 계기로 국내외 기업들의 여성 역량 강화 노력과 실천 사례를 조명하고, 저출산과 돌봄 등 성평등과 맞닿아 있는 한국의 사회 문제들에 대한 근본적인 해법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최지은 더버터 기자

알립니다

‘솔루션 저널리즘’에 동행할 기부자를 찾습니다

기후위기, 고령화, 지역소멸, 그리고 사회 양극화까지.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사회는 수많은 사회문제를 마주하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일자리를 잃고, 외로움에 갇히며, 기후위기 앞에서 삶을 터전을 잃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 질문을 던지고 해답을 찾는 일은 언론의 가장 중요한 역할입니다. 하지만 단순한 고발이나 비판을 넘어, 실질적 대안을 제시하고 그 과정을 추적하는 보도는 여전히 드뭅니다.

더버터는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한 ‘솔루션 저널리즘’을 지향합니다. 솔루션 저널리즘은 사건의 문제점을 보도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문제 해결 과정을 기록하고 분석하는 보도 방식입니다.

더버터는 솔루션 저널리즘의 여정을 함께 만들어갈 기부자를 모집합니다. 기부금은 전액 취재 제작비로 사용됩니다. 환경·생물다양성·로컬·론제비티(장수사회)·마음건강·가정밖청소년·다문화가정·은둔고립청년 등 기부자가 지정한 주제에 따라 현장을 심층적으로 조명하고 사회적 해법을 탐색합니다. 언론의 공공성과 실효성 있는 보도에 뜻을 같이하는 시민·단체·기업·재단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변화를 만드는 보도, 그 시작은 여러분의 관심에서 출발합니다.

문의 solutions@thebuter.org 02-3789-786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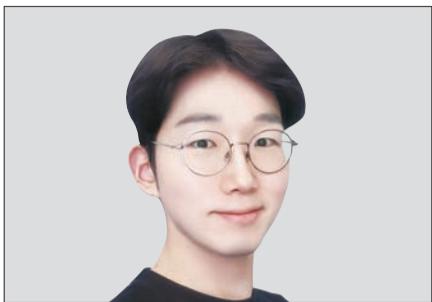
세상의 어두운 틈을 비추는 나눔 이야기



용돈 10% 기부에서 시작한 15년 나눔
김유리 기부자



마을 어르신께 한 끼 식사 대접하는 변호사
김창희 기부자



웹툰작가가 된 건축학도의 재능기부
김홍렬 기부자



디자인은 사회문제 해결의 도구입니다
배상민 기부자



'기부 트럭' 운전하는 떡볶이집 사장님
백동민 기부자

“대학 때 알았어요. 아버지가 초등교사였는데 형편 어려운 제자들의 학비를 대신 내주셨다는 걸요. 할아버지께서도 교사 시절 제자들 입학금을 대신 내주셨는데, 그걸 이어가셨다고 해요.”

김유리 기부자의 나눔에는 가족의 영향이 커다. 시작은 대학생 때 용돈의 10%를 기부하면서다. 직장인이 되고 나서는 2010년부터 지금까지 15년 동안 열매나눔재단에 매달 빠짐없이 후원금을 보내고 있다. 매년 열리는 후원자 행사에 개근할 정도로 변함없는 마음이다.

최근에는 재난이 잦아지면서 긴급 기부가 필요할 때를 대비해서 돈을 따로 모아두기도 한다. 정말 필요한 순간, 꼭 필요한 곳에 쓰이기를 바라는 마음 때문이다.

“누구나 자기 방식으로 나눌 수 있다 고 생각해요. 저는 작게 시작했지만 오래 할 수 있었고, 그게 제 방식인 것 같아요.”

“변호사가 되면서 인생의 30%는 사회를 위한 봉사로 비워두자고 결심했어요.”

김창희 기부자는 2018년 부산 북구 기초의원으로 활동하던 시절 봉사 현장에서 늘 마주치던 장면이 있었다. 주민들이 함께 음식을 나누려고 해도 마땅한 공간이 없었다. 그렇게 시작된 것이 ‘마을부역정지협동조합’이다. 마을 공동주택으로 공간을 구했고 조리기구는 사비로 채워 넣었다. 이를 계기로 굿피플의식사지원사업 ‘모두의한끼’에 참여하게 됐고, 정기기부로 이어졌다.

그의 나눔은 금전적 기부에 머물지 않는다. 공익법단체 두루의 ‘온마을로’ 프로젝트를 통해 미등록 출생 아동, 다문화 가정 아동에게 법적 도움을 주고 있다.

김창희 기부자의 나눔은 특별한 계기보다 할 수 있어서 하는 일’의 연속이다. 그렇게 오늘도 여러 얼굴로 누군가의 곁을 지키고 있다.

설계 도면을 그리던 건축학도 김홍렬 기부자는 창작의 꿈을 좇아 웹툰 작가가 됐다. 분야는 달라졌지만 사람에게 머물 공간, 즉 보금자리가 중요하다는 생각은 그대로였다. 생각을 실행으로 옮겼다. 6년 전, 한국해비타트의 집짓기 봉사활동에 참여했다. 땀 흘려 집을 지은 이야기를 웹툰으로도 그리고 기부도 시작했다. “예전엔 집 생각을 하면 마음이 조급했어요. 자가를 마련하기 전까지는 열심히 돈을 모아야 한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기부와 봉사를 하니 오히려 마음에 여유가 생기더라고요.”

한국해비타트에 정기기부 외에도 굿즈, 연차보고서 제작을 위한 일러스트 재능기부를 했다. 지난해에는 독자들과 집짓기 봉사에 나섰다. “더 완벽할 필요 없어요. 각자 지금 가진 능력만으로, 충분히 세상에 긍정적인 변화를 만들 수 있다는 걸 많은 사람이 알았으면 합니다.”

배상민 KAIST 산업디자인학과 교수는 디자인을 ‘진짜 문제를 발견하고 해결하는 과정’이라고 말한다. 그가 생각하는 진짜 문제는 아주 멀리, 그리고 낯은 곳에 있다. 아프리카의 식수 문제부터 저소득층 아동의 교육, 장애인의 접근성까지. 그는 그곳에 디자인을 가져다 놓았다. 그렇게 20년을 ‘필란트로피 디자인’이라는 이름으로 나눔을 실천해 오고 있다.

그는 디자인 제품의 판매 수익금을 전액 기부한다. 근본적인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제품을 연구실에서 개발하고, 현장에 보급하는 일도 마다치 않는다. 지금까지 월드비전에 기부한 규모는 17억원에 달한다. 개발비는 전부 사비로 충당하고 있다.

“디자이너의 지식과 경험이 꼭 필요 한 사람들에게 쓰일 수 있다면 이 일을 멈출 수 없습니다.”

경기도 고양시에서 떡볶이 가게를 운영하는 백동민 대표는 종종 특별한 출장을 간다. 특수학교 운동회, 지역 복지관 행사, 군부대 등이 그의 출장지다. 수백 인분의 음식을 준비하면 재료비도 적잖이 들지만 그는 개의치 않는다. “음식하는 사람들은 누군가 내가 만든 메뉴를 맛있게 먹어줄 때 가장 행복하거든요.”

백 대표의 기부는 1994년 신촌 노점에서 장사를 시작하던 때부터 이어져 왔다.

2013년부터는 홀트아동복지회와 인연을 맺고 장학금과 물품 기부를 했다. 각종 행사가 열릴 때면 떡볶이 트럭을 몰고 달려갔다. 그의 선행을 응원하는 이들도 점점 늘고 있다. 손님들이 기부해달라면서 가게에 저금통이나 용돈을 두고 가는가하면, 지인들이 떡볶이 트럭 재료비로 써달라며 정성을 보태기도 한다. 백 대표는 “가늘고 길게, 지금처럼 기부와 봉사를 오래 이어가는 게 목표”라고 말했다.



이웃을 살리는 일, 세상을 바꾸는 일
박경자·서도성 기부자



전장에서 만난 아이들을 잊지 못한 참전용사
신현각 기부자



비영리가 행복해야 세상이 행복합니다
이경제 기부자



65세에 받은 임명장, 급여 25% 기부합니다
이경혜 기부자



작년엔 느린학습자, 올해는 발달장애인에 기부
정슬아 기부자

“내 옆에 있는 사람을 돌보지 않고서는 더 나은 세상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경남 진주 토박이인 박경자·서도성 부부는 이런 믿음을 오랜 세월 지켜왔다. 이는 곧 지역사회에 대한 애정으로 이어졌다. 서도성 기부자는 30년 넘게 지역의 문화예술 단체, 환경 단체, 농민회 등 10여 곳을 후원해 왔다. 아내 박경자 기부자도 지역의 복지시설을 틈날 때마다 찾아가 봉사활동을 했다.

두 사람은 각각 고등학교와 초등학교에서 40년 넘게 아이들을 가르쳤다. 이들에게 교육은 단순히 지식을 전하는 일 이 아니라, 스스로 삶을 일굴 ‘자립의 힘’을 키워주는 일이었다. 은퇴 후에는 열매나눔재단 후원을 시작했다. 두 사람은 각각 15년, 12년 동안 자립을 돋는 다양한 사업에 힘을 보태고 있다. 서도성 기부자는 “이웃을 향한 사랑은 곧 나라와 인류를 사랑하는 마음”이라고 말했다.

부모를 잃은 아이들의 눈동자가 오래도록 잊히지 않았다. 신현각 광역건설 대표는 55년 전 베트남전에 참전했다. 한국에 돌아온 후에도 공포감과 슬픔, 이 뒤섞인 아이들의 눈빛은 기억 속에서 계속 또렷해졌다. 나이 서른이었다. 조그만 사업을 시작하면서 대한사회복지회에 학생들을 위한 후원을 시작했다. 그렇게 시작한 기부가 올해로 48년째다. “기부에는 중독성이 있어요. 힘든 사람이 있으면 좀 나눠 쓰면 좋지 않겠습니까.”

광역건설 사무실에는 나무로 짠 모금함이 있다. 그는 출근하자마자 매일 현금을 넣는다. 모은 돈은 매월 복지기관에 전달한다. “회사 사정이 좋을 때는 하루 50만원도 넣었습니다만, 많은 돈을 넣는 것보다 꾸준히 하는 게 의미 있는 것 같습니다. 형편이 나아지면 더 하고, 어려워도 그냥 하고. 그러다 보면 내가 행복해집니다.”

올해로 33년째 한의원을 운영하는 이경제 원장에게는 한 가지 신념이 있다. 직원이 행복해야 환자도 행복하다는 것이다. 돌보는 사람의 여유와 행복이 곧 환자에게도 전해진다는 걸 경험으로 깨달았다.

이런 마음은 기부로도 이어졌다. 집근처에 장애인을 위한 밀알학교가 들어설 때, 주민들의 거센 반대에 부딪히는 걸 보며 언젠가 그곳에서 사명감을 가지고 일하는 사람들을 돋울겠다고 다짐했다. 올해 1월 그는 기존에 해오던 기부와는 별도로 밀알복지재단에 매달 200만원씩 추가 기부를 시작했다. “이 기부금만큼은 꼭 지원들을 위해 써달라”는 뜻도 함께 전달했다.

“재단에서도 이런 형태의 기부는 처음이라고 하더라고요. 기부가 표면적인 도움을 주는 것에 그쳐선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더 근본적인 변화를 만드는 방식에 대해 끊임없이 고민하고 싶습니다.”

이경혜 한국장애인개발원장은 1급 시각 장애인이다. 대학 때 발병한 흉채염으로 20년간 투병하다 시력을 잃었다. 하지만 그는 “투병 이후 더 넓은 세상으로 나아갔다”고 말했다. 부산점자도서관장부터 한국시각장애인여성연합회 공동대표, 부산시의원까지. 장애 당사자의 경험과 정책 전문성을 바탕으로 장애인 권익을 조금씩 바꿔온 삶이었다.

지난 2023년, 65세에 공공기관장으로 임명될 때 그는 결심했다. “급여의 4분의 1은 기부하자.” 그의 결심은 바보의 눈을 통해 이뤄지고 있다.

그가 말하는 나눔은 복지 정책 안에서 구조적으로 담아내기 어려운 빈틈을 메우는 일이다. “거액은 아니지만 지금 꼭 필요한 사람들에게 쓰였으면 해요. 잠시라도 덜 아프고, 덜 춥고, 가슴을 펴고 웃을 수 있다면 그걸로 충분하다고 생각해요.”

기부하면서 비영리단체에서 지원하는 사업들도 하나씩 알게 됐다. 그는 “단체와 이야기하면서 느린학습자와 발달장애인들이 어떤 어려움에 부닥쳐 있느냐 알게 됐다”고 말했다.

정씨가 지금까지 기부한 금액은 6000만원에 이른다. 그의 기부 소식을 듣고 일부 직원들도 정기기부를 시작했다고 한다. “동료들이 나눔을 시작했다는 소식을 들을 때마다 일을 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2025 파이워크 참여 기관

